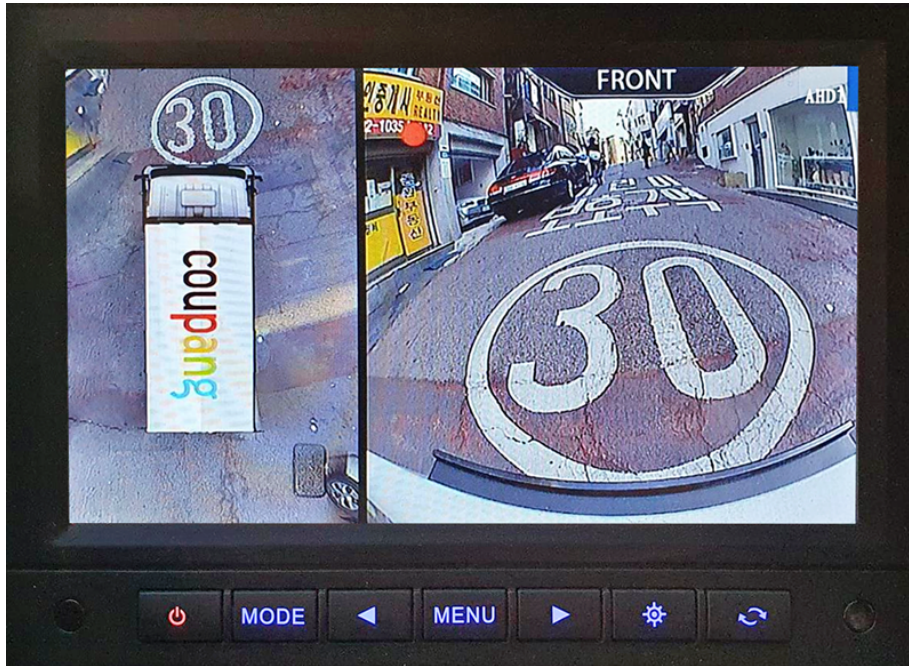


[보도자료] 쿠팡, 전 배송 차량에 어라운드 뷰 설치

2020. 3. 25.



- 쿠팡맨 안전을 위한 조치로 배송업계 최초 전 차량 설치
- 좁은 골목 등 차량 운행시 안전성 높여

2020. 03. 25. 서울 – 쿠팡은 쿠팡맨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해 전 배송 차량에 어라운드 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.

‘어라운드 뷰’는 차량에 부착된 4대의 카메라가 차량 주변을 360도로 한 화면에 보여주는 장치이다. 어라운드 뷰를 통해 쿠팡맨은 주행 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전방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. 특히,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주행하거나 주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 쿠팡은 올해 7월까지 전 차량에 어라운드 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.

쿠팡은 그동안 안전 운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. 쿠팡맨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고, 업계 최초로 전 차량에 보조 미러, 전후방 센서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경보음을 필수로 설치했다. 또한 쿠팡맨들의 운전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오토차량을 운영하고 있다. 이러한 안전 조치 외에도 쿠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배송인력을 직고용하고 주 5일제 52시간제를 준수해 왔다. 쿠팡맨은 일평균 9.3시간, 지입제 택배업계의 일평균 근무시간은 12.2시간으로 조사*된 바 있다.

고명주 쿠팡 인사 부문 대표는 “쿠팡은 배송 차량 운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해 쿠팡맨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.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춰 더욱더 안전하게 배송하는데 앞장서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* 출처: 쿠팡, 2019, 택배서비스산업 일자리 실태 조사 분석, 한국교통연구원, 2018>